

■ 룰라

오 삼 교

좌파 대통령 룰라

2002년 룰라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브라질 역사상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브라질 노동자당(PT: Partido dos Trabalhadores, 이하 PT)의 룰라(Lula: Luiz Inácio Lula da Silva)는 2002년 10월 27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61.27%를 얻어 38.73%를 얻은 집권당 후보인 주제 세하(José Serra)를 누르고 4번째의 도전에서 드디어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4년 후인 2006년 10월에는 유효투표의 60.8%를 얻어 39.2%를 기록한 PSDB의 아우크민 후보를 2천만표 이상의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지난 수년간 5%의 경제성장률과 수출과 일자리 증대, 빈곤층 감소,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의 성과를 이루어 올 상반기에 무려 80%를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다.

룰라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의 분위기는 지금과 판판이었다. 우파는 룰라가 노동자 중심의 분배정책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적대정책을 취할 것을 우려하였고, 좌파도 보다 적극적인 변혁정책을 기대하였다. 일부에서는 브라질 자본주의 체제에서 룰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내놓았다. 미국의 저명한 좌파 남미학자인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2002년 브라질 선거정국에서 좌파의 누가 당선되든 “그들은 경제 붕괴에 직



면할 것이고, 실패가 확실한 IMF와의 계약관계에 묶여있을 것이고, 사회적 불안정과 늘어가는 사회적 불만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선거 이후 시기는 곧 부의 양극화 심화와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페트라스의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다. 룰라의 실용주의 리더십은 우파와 좌파의 우려를 모두 불식시켰다. 좌파 대통령의 등장으로 브라질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사라졌다. 그는 전임 카르도주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좌파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으나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오히려 IMF에 진 부채를 3년 만에 모두 상환하였다. 2004년 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래 강화된 경제 펀더멘탈을 배경으로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나아가 경제위기를 초래한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금

용관리 체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모든 공약을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첫 임기 중에는 가족기금(Bolsa Família)으로 빈곤층을 현저히 줄였으며 2007년에는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 개발,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PAC(성장가속화프로그램)으로 장기적 성장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우파가 혼란에 빠트린 자본주의를 좌파 대통령이 제자리에 돌려놓은 셈이다.

그러면 과연 룰라는 좌파인가? 룰라의 인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그가 보여준 리더십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브라질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룰라 대통령 당선의 배경과 의미

2002년 룰라의 당선은 브라질 정치사에서 몇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브라질 최초로 빈곤 지대인 동북부 출신의 하층민이 동남부에 집중된 엘리트 기득권층의 두꺼운 벽을 뚫고 최고의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브라질 사회의 공고한 엘리트 지배구조에 균열이 초래되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선반공 출신 노조 지도자였던 룰라가 미국 코넬 대학 경제학 박사로 전임 카르도주 정부에서 사회복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주제 세하를 물리친 것이다. 브라질 정치는 더 이상 엘리트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룰라 자신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그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룰라의 당선은 룰라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그가 창당을 주도한 노동자당(PT)의 성장과 집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PT는 1970년대 후반 파업운동을 주도한 금속노조 노동자를 중심

으로 지식인, 급진좌파, 정치인, 교회 및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가세하여 창당한 신흥 좌파 정당이다.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다양성의 보장, 노동 계급의 정치적 자주성을 기초로 한 대중 정당을 지향한 PT는 당의 위로부터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는 레닌주의 공산당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좌파 정당으로 관심을 모았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하는 PT는 1982년 처음 선거에 참여하여 하원의원 8명을 배출한 이래 매 4년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1989년에는 룰라가 좌파의 대표 주자로 대통령 선거 결선까지 진출하였다. 비록 1994년, 1998년 대선에서 전임자인 카르도주에게 1차 선거에서 패하기는 하였으나, 룰라는 좌파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자였다. 1989년에는 빈민운동가 출신의 에룬지나가 처음으로 상파울루 시장에 당선될 정도로 1980년대는 PT의 성장기였다. 90년대에도 PT는 여러 명의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2002년 총선거에서 하원의원 91명을 당선시킴으로서 창당 20년 만에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룰라의 등장은 PT의 이러한 정치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한 것이며 동시에 브라질 민주화를 이끌어 온 민주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룰라의 당선은 또한 1990년 콜로르 대통령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산업자본가와 일반 유권자의 반감과 실망을 반영한 것이었다. 1994년 재무장관 시절 헤알플랜의 성공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카르도주는 1998년 여세를 몰아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가 집권 1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집권 2기에는 부메랑이 되어 브라질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외국자본 유치에 위한 높은 이자율은 국내 공공 부채 급증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1999년의 금융위기로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브라질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신자유주의가 산업 성장을 자극하지 못하고 금융부문만 배불리게 되자, 성장은 정체되고 소득은 저하되었으며 실업률도 급증하였다. 90년대에 경제성장률은 1.8%에 불과하였으며 1990년대 거대 도시지역에서는 평균 8%의 소득이 감소되었다. 실업률은 1989년 전국 평균 3%, 1992년 7%, 1995년 6.5%, 1998년 9.5%로 계속 증가하였다. 신자유주의가 산업자본을 홀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자 기업가들이 룰라 지지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거 막바지인 2002년 9월까지 약 500여명의 기업인이 공개적으로 룰라를 지지하였으며 에우제니우스 타우비(Eugenio Staub)나 이부 호세치(Ivo Rosset) 같은 대기업가와 상파울로산업연맹(Fiesp) 부회장인 호베르투 제아(Roberto Jéha) 같은 거물급 인사도 룰라 지지대열에 동참하였다. 약 150여명의 중소기업가들은 ‘시민을 위한 브라질 기업가 연합’(CIVES)을 조직하여 전국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룰라 지지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수출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약속한 룰라에게서 브라질의 희망을 찾고 있었다.

룰라의 변화

브라질처럼 노조 조직률이 낮고(10%대 중반) 의회에서 보수파와 중도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큰 나라에서 적어도 이론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정당이 어떻게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룰라와 PT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룰라는 1975년 노조원 92%의 지지로 상파울루 근교 상베르나

르두 두 캠푸 금속노조위원장에 당선된 이래 1978년부터 80년대 초반의 브라질 노조의 파업운동을 선도하면서 전국적 인물로 부상하였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강성 노조 지도자의 투쟁적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그가 처음 정치권에 진출한 것은 창당 후 첫 선거인 1982년 상파울로 주지사에 출마한 것으로 이때 룰라는 “노동자는 노동자 대통령을 뽑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신이 노동자 후보임을 강조하였으나 결과는 4위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 1986년 선거에서는 65만 표로 전국 최고득표로 브라질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룰라는 정치권의 지루한 협상과 줄다리기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1989년 대선 실패 후에도 의회로 돌아가지 않았다.

룰라는 노조위원장 시절이나 80년대 정치권에 진출한 후에도 이념적 급진파는 아니었다. 1989년 대선에서 실패한 후에는 시민 카라반(Caravana de Cidadania)을 조직하여 브라질 구석구석 가난한 오지를 순방하면서 브라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노동자적 시각 못지않게 국민적 시각에서도 브라질 문제를 보았으며 이념적 공약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선호하였다.

룰라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대선 공약이다. 1989년의 첫 번째 대선에서 룰라는 금융은 국가 통제 하에 두어야 하고, 외채 지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PT는 중도파나 우파 정당과 결코 연합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였다. 1994년에는 헤알플랜은 선거용 사기이고 에너지나 통신 부문 민영화는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1998년에는 훨씬 유연한 입장에 서서 헤알플랜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며, 민영화된 회사는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급진적인 무토지농민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에 대해서도 브라질 같이 큰 나라에서는 농업 개혁을 위해 남의 땅에 침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 선다. 2002년 선거에서는 공공 부채를 존중할 것이며 민영화도 나쁜 것만은 아니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고 PT는 제후 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1989년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룰라는 PT나 자신의 입장변화를 “세계가 변했고 브라질이 변했다. PT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라는 말로 간결하게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선거에서의 변화는 좀 더 자세히 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2년은 룰라에게도 커다란 변화의 해였다. 3번의 대선 도전에서 실패한 룰라와 PT 지도부는 기업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룰라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러닝메이트는 좌파 정치가가 아니라 우파인 자유당(PL) 대표이며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의 자수성가한 섬유재벌인 주제 알렌카르였다. 그의 홍보 전략도 바뀌었다. 1989년 선거에서 거칠고 검은 구레나룻에 분노의 표정으로 노동자 후보를 외치던 룰라의 모습은 이미 없었다. 선거 슬로건은 ‘평화와 사랑’(Paz e amor)으로 바뀌었으며 룰라는 멩동사(Mendonça)라는 일류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여 정장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는 중년 신사,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는 글로벌 지도자의 모습, 화목한 가족을 가진 성공한 정치가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PT 후보의 이런 변화는 언론에서 ‘가벼운 PT’(PT light) 혹은 ‘장밋빛 PT’(PT cor-de-rosa) 등으로 묘사되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선거운동 중 우파는 룰라가 집권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브라질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흑색선전에 나섰다. 룰라는 이에 대항하여 브라질 정부의 모든 대외적 의무를 존중하며 IMF의 재정 흑자

요구 수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Carta ao Povo Brasileiro)를 2002년 6월에 발표하였다. 상파울로주식거래소(Bovespa)와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여 기업인과 금융계를 안심시켰다. 이전의 PT가 주식 시장을 일종의 카지노 같은 투기장으로 보고, 외국 자본을 ‘모텔 달러’(브라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로 인식해 온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방향전환이었다. 주식 시장의 생산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PT가 브라질 주류 사회의 경제 인식을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대선이 거둬지면서 PT의 정책은 점차 급진적 성격이 완화되고 브라질 자본주의의 관리와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2002년 룰라의 선거 공약도 주로 수출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었다. 룰라가 꿈꾸는 세상은 안정적 투자기반 위에 자율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 공존하는 성장 경제였다. 룰라와 PT 지도부의 온건 성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득표를 위한 갑작스러운 변신이라기 보다는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현실 적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룰라의 이러한 변화는 룰라 자신의 실용주의적 리더십 이외에도 PT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1995년 온건파인 주제 지르세우(José Dirceu)가 급진 좌파가 장악한 이전 지도부를 밀어내고 PT 대표로 선출되면서 PT는 온건 실용주의를 강화한다. 이때부터는 사회주의보다 “민주혁명”을 강조하였으며, 당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PT좌파들은 실질적인 당권에서 소외되었다. 지도부 인사들은 선거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내세우는 것이 선거에 불리하며 사회주의 이상은 장기적 비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룰라 정부의 성과와 한계

2003년 1월 1일 취임 이후 6년 반 동안 그가 거둔 성과는 2009년 초 무려 80%가 넘는 지지율과 지난 수년간 5%대의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확대와 높아진 위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급진 좌파를 제외하고는 그의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연임 제한 조항을 폐기하거나 3선이 가능토록 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이다.

룰라가 카르도주 정부 말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비교적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의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경제는 2007년 2008년 연속 5.7%, 5.5% 성장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IPCA)는 2002년 12.5%에서 2007년 4.5%, 2008년 5.9%로 안정되었다.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는 2002년의 130억 달러에서 2007년 400억 달러로 늘었으며, 세계경제 위기가 닥치기 시작한 2008년에도 247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외환보유고는 2002년 378억 달러에서 2008년 1,93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말에는 IMF 부채 155억 달러를 완전히 상환하여 IMF의 통제를 받던 10년간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였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2002년 50.5%에서 2008년 36%로 낮아져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강화된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브라질 경제는 비교적 빨리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업률은 2002년의 10.5%에서 2008년 7.6%로 줄었으며 빈곤층 인구는 2002년 5,748만 명에서 2007년 4,178만 명으로, 극빈층 인구는 2002년 2,335만에서 2007년 1,464만으로 줄었다. 빈곤층이 상당수 줄어든 데는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기금의 역할이 컸다. 가족기금은 룰라가 재선에 나선 2006년 당시 거의 9백만의

빈곤가정과 약 3천만 명의 빈곤 인구가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일주 45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가정(약 1,100만 가구로 추산됨)의 77%에 매달 65헤알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지니계수도 2002년 0.589에서 2007년 0.553으로 개선되었다. 카르도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영화가 중단되었으며 노자관계나 국가-시민관계에서도 약자인 노동과 시민의 입장이 강화된 것도 지적할 만하다.

일부 비판자들은 그가 브라질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공공부채 관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부문의 약탈적 수입구조를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브라질 재정의 1/4가까이가 공공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지불되고 있으며 이는 전임 카르도주 정부의 외국 자본유치를 위한 고이자율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 대 초반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높은 이자율은 외국자본을 불러들여 고환율을 초래한다. 브레세르 페레이라 전 재무장관은 고환율로 인한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우려하고 있다. 고환율로 수출이 억제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업 성장이 정체되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재 브라질의 수출 구조가 광물과 원유 등 1차상품 중심으로 짜여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콜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성공여부는 다음 정부에서나 가려질 전망이다(2007년 콜라 정부는 장기적 경제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5,040억 헤알에 이르는 성장가속화 프로그램(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개선, 전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산업 투자, 도시지역 거주 인프라 및 위생 조건 개선 사업 등이 포함)을 발표하였



브라질 노동자당 창당 29주년(2009년 2월 14일) 기념로고

으며 2008년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4개 핵심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룰라 정부의 한 가지 정치적 오점은 2005년 발생한 멘살라웅 스캔들이다. 룰라정부는 2005년 7월 PT의 제휴 정당인 PTB 대표인 제페르송(Jefferson) 하원의원이 PT가 제휴정당 의원들에게 매월 고액의 용돈을 주어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룰라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격인 지르세우를 비롯하여 당 대표와 사무국장, 재정국장이 모두 사임하였다. PT의 의석이 전체의석의 20%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깨끗한 정치를 표방해 온 PT가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룰라의 지지도는 곧 다시 상승하여 브라질 국민들이 룰라에게는 큰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이다.

룰라의 리더십: 온건 실용주의

룰라의 인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우선은 룰라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가족 기금으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 데서 찾을 수 있

다. 특히 가족기금은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빈곤층의 49%가 몰려있는 동북부 지역의 룰라 지지도가 55%로 급증하면서 룰라의 재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G-5, G-20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발언권을 높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이 성장과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한다는 그의 실용주의 리더십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룰라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의 선택이 이념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점이다. 노조위원장 시절 그의 투쟁적 면모는 이념적 지향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눈앞의 불의에 대한 분노이고 저항이었다. 그는 공산당원인 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념에 충실하기보다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더 중시하였다. 파업을 지휘할 때도 물러설 때 물러날 줄 알아 무리한 투쟁을 삼갔다. 룰라는 연방하원의원으로 일하던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총파업을 주도한 CUT(브라질 유일노동연맹: 룰라가 주도한 전투적 노동운동세력이 1983년 창설한 노동정상조직)를 비판하였으며 파업할 때도 대중교통수단의 마비 같은 일반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룰라는 이념적 지식인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문제를 급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다. 1986년 선거 당시에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전위적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룰라는 이들 전위적 지식인들이 시장에서 바나나를 팔듯이 사회주의를 팔고 있다고 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룰라는 1989년 대선 실패 이후에도 의회로 돌아가지 않고 시민연구소(Instituto Cidadania)를 창설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여러 전문가들과 빈곤, 복지, 범죄, 교육 등 브라질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룰라 정부 초기의 기아제로(Fome zero) 정책도 시민연구소에서의 프로젝트 결과였다. 룰라가 취임 후 주요 경제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로 이념의 색채와 무관하게 전문가들을 기용한 것도 실제적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룰라의 이러한 현실문제 해결 지향성은 그가 급진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는 PT의 창당 주역이었으나 온건파인 아르치쿨라상 정파의 대표이기도 하였으며 극단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였다. 그가 목표로 하는 사회정의도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룰라는 이같이 제도권 내의 현실적 접근을 통해 대중적 친화성을 획득하고 보수파의 거부감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룰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카리스마이다. 룰라의 대중을 이끄는 힘과 카리스마는 그가 노조지도자일 때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그는 쉬운 말로 대중을 움직이는 연설 능력이 뛰어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인다. 1978년 파업 당시 음향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수많은 대중 앞에서 육성으로 연설하였다. 앞줄의 노동자들이 그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뒷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은 전설로 남아있다. PT의 싱크탱크격인 페르세우 아브라무 재단의 알렉상드리 박사에 의하면 PT 내부에서도 주기적인 지도부 경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룰라를 대신하거나 이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 룰라는 PT내의 다른 정파들의 공격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으며 그 위에 있었다. 다시 알렉상드리 박사를 인용하면, 룰라는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론에 얽매인 지식인들의 복잡한 사고구조를 뛰어넘어 문제를 거시적 시각에서 유연하게 보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러한 능력이 대중적 소통능력과 함께 그의 카리스마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룰라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대중적 친화성과 광범위한 인기를 잘 설명해준다.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겸손하고 솔직하며,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며, 친절하지만 강인하고, 저돌적이지만 융통성이 있으며 이념적이기 보다는 현실주의적이며, 폭력적 방법은 반대하며, 언행이 일치하며, 직선적이지만 참을성 많고 의리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거운동 중에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룰라의 당선과 인기의 근거에는 거의 사회적 합의라고도 할 만한 룰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CUT의 국제부장을 역임한 자콥생(Kjeld Jakobsen)에 의하면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주요당 후보들이 서로 엇비슷한 중도좌파적 강령을 내세웠으며 룰라의 당선은 유권자들이 룰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룰라와 브라질의 미래

룰라는 이념적 혹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정책이나 행동을 조화시키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룰라의 복합성이다. 룰라는 자신이 비판한 전임 카르도주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회적 변혁을 기대하던 좌파를 실망시켰으나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파적 발상으로 실업률 감소와 빈곤 완화라는 좌파적 목표를 일정 부분 성취해냈다. 이

점에서 그는 역설적 위치에 놓인 정치인이다.

룰라 리더십의 복합적 성격, 혹은 역설적 유연성은 그의 정책적 선택을 좌우 어느 한편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한다. 룰라는 반미는 아니면서도 쿠바의 카스트로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브라질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도 중시한다. 룰라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자본의 부당한 정책 간섭을 배제하여 정책적 독립성을 보유할 정도로 경제가 강해져야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을 변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했지만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조를 마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또 자신의 적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브라질 국민 전체의 이익 실현을 방해하는 투기적 국제자본이며, 국제 금융질서의 개혁을 통해 브라질 나아가 남미 국가 전체가 미국의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사회가 좌파 대통령을 통해 브라질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강화시켰다면 좌파 대통령 룰라는 우파적 방법으로 좌파적 목표를 추구하는 역설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쩌면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 혹은 이념적 구분이 브라질의 현실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좌우의 스펙트럼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룰라의 정책 지향은 복합적이며 보다 미래지향적이다. 노동자당(PT) 대통령인 그의 지지기반은 광범위하며 그의 수사는 성장과 분배, 사회정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계급적 분배를 넘어 브라질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거대 프로젝트와 신에너지 개발, 신흥거대시장국가의 국제적 발언권 확보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좌우 양쪽 모두에서 공격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묘한 예술적 정치 감각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과거 국가의 억압적 조치에 대하여 급진적 저항을 하기보다 어떻게든 관료적 통제를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묘안(jeito)을 찾아내는 브라질 사람들의 삶의 지혜와 통하는 점도 있다. 룰라는 이러한 브라질 사람들의 오랜 생존술을 리더십으로 체현한 정치인인지도 모른다.

2010년 선거를 앞둔 브라질 정국의 한 가지 특색은 대부분의 정당이 룰라의 성과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룰라가 브라질을 안정된 제도적 기반 위에 성장과 번영, 사회정의로 이르는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브라질 국민들은 브라질의 미래를 위해 역설적이고 상호충돌적인 정책노선을 정치적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룰라적 리더십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점이다.□